

제13회 정기공연

# 부산시립무용단

1984.5.23~24 오후 7:00  
부산시민회관 대강당

## ❖ 공연순서 ❖

○ **눈** (1983. 11 初演) ..... 김 광 식 외 27명

음악 : 장 덕 산

원작 : 황 루 시

자연, 사회, 인간과의 관계를 그린 작품으로 자연은 끊임없이 잉태, 소멸되는 가운데 또 다시 반복 생성 되어진다.

그 속에 사는 인간의 삶은 자연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점차 오늘의 상황에서 생존 경쟁으로 변하면서 믿음에 대한 균형이 깨어짐을 형상화한 것이다.

○ **소 곡** (小曲) ..... 김 미 숙 외 6명

대금 : 유 경 조

끓어오르는 生의 悲哀를 한치의 티끌도 내보이려 하지 않는 옛 우리네 女人들의 心性을 대금 독주에 실어본다.

○ **정** (情), 하늘 ..... 신 욱 자 외 7명

선율의 변화 속에서 공간을 초월하는 듯한 한점 한점 펼쳐지는 고운 자태, 감기우고 휘둘리며 풍기는, 먼 울림이여 ——

○ 지난겨울.....최 은 희 외 38명

음악 : 이 의 경

원작 : 박 진 주

前 時代의 한 女人이 겪었던 괴로운 체험들을 구체화 하고 이것을  
비유적으로 형상화 하였다.

그녀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었다.

잃은 자가 도로 빼앗기 위한 투쟁을 단념해 버릴 수만 있다면.....

그녀는 춤으로 祈求했다.

그 춤이란 그녀의 日常生活에서 얻은 律動的 체험이다.

女人은 자기 解体의 강박관념에 사로 잡힌다.

주위에서 죄어드는 狂氣가 자신을 휩싸여 버린다.

來日의 向方은 未知인 것이고, 오직 오늘이 있을 뿐이다.

因果란 없다고 본다.

한 女人의 방황, 그리고 그女人은 그녀의 의지에 反하여  
되어가는 것이다.

그녀의 미움은 가난도 아니고 고된 노동도 아니었다.

그녀를 嘲笑하는 듯한 타락 되어진 사회 현상의 모습이다.

○ 서 막 : 地神의 춤

○ 1 장 : 일 터

○ 2 장 : 양반과 기방

○ 3 장 : 난 장 판

특별출연 / 서 : 이 용 식

북 : 김 종 기

장고 : 김 종 대